

금남로에서

김동영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역사회의 숙원인 무안국제공항의 조기 개항을 시사했다. 추 장관은 지난 1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무안기업도시 투자유치 설명회'에서 "무안기업도시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분위기가 성숙된다면 개항시기를 앞당기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며 "내년 개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현실에서 추 장관의 언급은 지역 사회에 기대와 희망을 주기에 충분하다. 광주와 전남에는 광주와 목포, 여수공항이 있지만 국내선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제공항이 없다 보니 기업

내 최초의 산업교역형 기업도시다. 중국 세계 6위인 광사그룹을 비롯해 충칭시 등이 해외 거점 개발의 일환으로 참여하고 있고 다른 기업들도 투자를 적극 모색하고 있다. 해외투자 유치에 무안공항의 조기 개항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추 장관은 건설교통부에서 잔뼈가 굵은 '건설 교통통'이다. 주택도시국장, 기획관리실장, 차관보, 차관 등 요직을 거치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인천신공항 개항,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 주택시장안정대책 등 굵직굵직한 현안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내 승객보다 국제수요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조기 개항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장관은 말 그대로 '나랏말'을 믿고 있는 국무위원이다. 그런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장관이 수많은 기업인 등이 참석한 공식행사에서 '햇말'을 했을 리는 없을 것이다.

무안공항 '조기 개항' 의지 있다

완공 잇단 연기에 실망

추 장관의 발언이 주목되고 있는 것은 정부의 기존 방침과는 달리 무안공항의 조기 개항을 약속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 1997년 착공된 무안공항은 당초 2003년 완공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04년 감사원의 권고로 2006년 이후로 연기되더니 지난해에는 건설교통부가 경제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07년으로 늦춰다가 지난해 다시 2008년까지 연장됐다. 7년이었던 공사기간이 12년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개항시기조차 짐작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유치에 차질을 빚고 있고 지역경제는 낙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광주·전남의 상황도 많이 달라졌다. 무안기업도시가 본격적인 기업 유치활동에 나섰고 해남과 영암 일대의 JRC 프로젝트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나주에는 공동혁신도시가 들어설 예정이고 광주문화수도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대형 프로젝트가 속속 가시화되면서 무안 공항을 조기 개항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무안기업도시에는 총 1220만평 중 600만평이 한·중산업단지로 개발되는 국

왔다든 평을 받고 있다. 특히 국토균형발전과 지방의 SOC 확충에 유별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의 이같은 관심은 지난해 5월 국회 예결위 질의 응답에서 대표적으로 드러난다. 추 장관은 지방공항 건설의 문제점을 꼬집는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의 질문에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각 지역에 균형 하나쯤은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무안공항에 대해서 "당장은 불필요하더라도 시대적 흐름에 따라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 2006년 완공 계획이지만 1년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본다"면서 "국

구체적 방안 내놓아야

일부의 지적대로 추 장관의 조기 개항 발언이 '립 서비스' 차원이었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무안기업도시에 기업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사탕발림'식으로 조기 개항을 언급했다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결과가 된다. 장관이 편의에 따라 거짓말을 하는 정부가 신뢰를 받을 수는 없고 그 부작용은 클 수밖에 없다.

건설교통부 무안공항의 조기 개항에 따른 예산 지원방안 등 구체적 대책을 하루빨리 내놓아야 한다. '장관 개인의 검토 차원의 발언이었다'고 발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장관이 약속한 이상 실무차원에서 이를 시행해나가는 것이 올바른 자세다. 정부의 의지만 확고하다면 공작물이 87%를 넘고 있는 만큼 무안공항의 내년 개항은 결코 어렵지 않은 일이다.

(〈본실실장〉 dykim@kwangju.co.kr)

시설

日 총리 신사참배 시대착오적 망동이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주변국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2차 대전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했다. 2001년 총리 취임 이후 6번째 참배한 것이다. 특히 올해는 과거와는 달리 종전 기념일인 8월 15일, 그것도 보란듯이 일반 참배일이 아닌 본전에서 참배를 해 우리의 심사를 더욱 뒤엎리게 하고 있다. 주변국의 거들된 경계에도 불구하고 고이즈미 총리가 A급 전범의 위패에 머리를 조아린 것은 군국주의 부활을 시도하려는 시대착오적 망동이자 명백한 외교적 도발행위로 엄중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또 과거 일제 침략전쟁과 식민 지배로 인해 고통받은 주변국 국민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불상사한 파렴치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오기로부터 비쳐지는 고이즈미의 이번 신사 참배는 일본의 우경화 기류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최근 일본의 한 언론사 여론조사를

보면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 군국주의로 회귀하려는 일본인의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한일 간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독도를 비롯한 역사 교과서·종군위안부 문제 등도 점점 군국주의로 기울어 가는 일본의 저변에 흐르는 기류와 무관치 않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그러나 과거로 되돌아 가려는 시대착오적 역사 인식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해치고 특히 일본인에게 더 큰 불행과 자초한다는 사실을 일본 정치 지도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우리 정부도 중국 등 다른 당사국들과 공조해 일본 총리의 신사참배에 대해 강력하고 효과적인 외교적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친일파채산 환수 등 과거사 문제를 하루빨리 정리해 과거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

차시장-輿의원, 더 이상 화해 미루지 말라

열린우리당 광주지역 국회의원들과 광주시가 오는 18일 당정협의를 갖기로 했다. 내년 예산 확보 등 광주시의 현안을 협의할 예정이지만 박광태 광주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고소·고발 상태에 있는 등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는 점에서 회동 결과가 주목된다. 광주시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선 지역 국회의원들과 박 시장의 관계 개선은 매우 시급하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모두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 소속이다. 당장 내년 예산 확보부터 이들 국회의원들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문화수도와 공동혁신도시 등 현안에도 국회의원들의 협조는 필수적이다.

회해 기류가 없는 것도 아니다. 특히 화해 의원은 지난달 한 행사장에서 박 시장과 화해를 다짐했다. 염 의원은 "선거 때 생긴 오해 때문에 양금이 남아 있다면 광주의 미래를 위해 앞장서 풀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박 시장도 "염 의원과 내가 어떤 사이인데 갈등이 있겠느냐"고 화답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박 시장의 갈등이 계속되어선 곤란하다. 서로 머리를 맞대도 협거울 관에 협조는 고사하고 감정싸움을 벌여서는 지역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시민들은 박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대화 채널마저 닫고 있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 양측은 하루빨리 양금을 털고 화해해야 한다. 올 광복절 최대 화두는 국민통합과 국가역량 결집이었다. 이런 마당에 시장과 국회의원들이 선거과정에서 쌓인 감정을 풀지 못해서야 되겠는가. 박 시장도 국회의원들의 협조 없이는 최대 과제인 '일등 광주건설'이나 '광주 살리기'가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지역 국회의원들과 박 시장은 싸움을 중단하고 "광주의 미래"를 걱정하길 바란다. 당정협의를 서로 화해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시고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은펜칼럼

박흥근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 자동차교통을 원활히 하여 공중의 편의를 도모함이 목적이다. 자동차 생활의 필수품처럼 된 상황에서 주차장 없는 건축물을 생각하기란 어렵다.

그러나 광주 옛 도심 한 복판에 들어서는 '아시아문화전당'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야 한다. 전당 주변의 도심은 '광주' 도시의 얼굴이고, 역사성을 바탕으로 문화를 파워한 곳이며, 과거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곳이다. 그러나 하기에 문화전당이 어떻게 개발 되느냐는 도시경쟁력 확보에 최대 변수가 될 것이다. 2005년 초에 시작된 '아시아문화전당

문공부는 지난 5월 17일자 '문화전당 기본설계 지침서'에 주차장을 인근에 분산배치 하도록 했다. 그런데 지역관계자들이 배제된 8월 1일의 '문화전당 기본설계 중간보고회' 내용에는 인근 주차장계획이 없고 전당 내에 주차장이 설치됐다. 2개월여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문공부 담당자들의 교체와 지역의 바람에 대한 인이한 인식, 그리고 기획예산처의 예산 사용에 대한 강력한 권고에 따른 것이라 한다.

중요한 것은 주차장이 전당 내에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 '건고 싶고, 매력적인 가로 만들기'와 길거리문화형성에 필요한 공간과 녹지공간을 만들

"주차장과 문화전당, 2%의 마술"

기분규상연구' 단계에서부터 많은 전문가들이 논의하여 결론에 도달한 것은 문화전당에 필요한 주차장을 인근에 배치하여 도심에 '건고 싶고, 매력적인 가로 공간'으로 만들고, 더불어 도심상권도 활성화시키는 것이었다.

도심에 보행자들의 공간을 확보한다는 것은 반대로 자동차를 위한 공간의 축소를 의미 한다. 그렇다고 자동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문화전당 주변에 차량통행은 최소화 하고, 일정구역을 보행자전용, 또는 보행자 중심으로 운영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인근 여러 방향에 공공 주차장을 확보해 주차 후 도심으로의 접근은 보행과 대중교통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되면 시민들은 도심이 주는 건축적·공간적 가로의 아름다움과 거리문화를 즐길 수 있게 된다.

러는 도시기분규상까지 근원부터 흔들리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주차장 분산배치에 따른 소요 예산은 300억여원이라 한다. 엄청난 예산이다. 그런데 광주를 문화중심도시로 만드는 데 2조원을 투자 한다. 총 예산 규모로 보면 투자비의 2% 이내다. 아까려다는 것은 반대로 자동차를 위한 공간의 축소를 의미 한다. 그렇다고 자동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문화전당 주변에 차량통행은 최소화 하고, 일정구역을 보행자전용, 또는 보행자 중심으로 운영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인근 여러 방향에 공공 주차장을 확보해 주차 후 도심으로의 접근은 보행과 대중교통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되면 시민들은 도심이 주는 건축적·공간적 가로의 아름다움과 거리문화를 즐길 수 있게 된다.

(주)포유건축사사무소 건축사: 2004년 12월 수상자)

은펜칼럼은 매월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자중 최우수작에 수여하는 '은펜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기고를 실는 코너입니다.

바쁜 은행 업무, 상사도 직원과 함께 업무처리 해줬으면

얼마 전 입금을 하려고 은행에 들어섰는데, 대기자들이 많아 대기번호표를 뽑은 채 한참을 기다렸다. 그런데 끊임없이 컴퓨터 자판기와 계산기를 두드리는 창구 직원이 있는 가 하면 고개를 끄덕이며 즐기고있는 상사 직원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은행 업무를 보려는 대기자들이 많다는 것을 안다면 직접 나서 업무 처리를 도와주는 것도 한 방법인듯 한데 간부로서 즐기고

는 모습이 불쌍사나웠다. 직책에 따라 업무가 다르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그래도 은행을 찾는 많은 고객들에게 최소한의 예의는 보여주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최근 금융권은 구조조정이 합병이니 하면서 외형적으론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부 분위기는 그에 못미치는 것 같다.

▲이영희·광주시 서구 양동

기고

김옥주



직장과 가정에서 동료와 가족들이 즐거운 휴가여행을 떠날 때 소외되고 몸조르려는 이들이 있다. 신체적으로 불편한 장애인들이다.

평상시 집과 직장, 학교 등에서 이동이 힘들어 가고 싶은 곳이나 보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장애인들의 현실이다. 내륙산간지방의 장애인들이 하얀 백사장과 파란 바다를 어떻게 쉽게 볼 수 있으며, 반대로 바닷가 장애인들 역시 깊은 산속 계곡과 산정상 등정의 시원함을 어찌 느낄 수 있겠는가.

가는 곳마다 관광지라 불려지는데는 층층이 배푼 계간이요, 휠체어로는 거의 접근이 어렵고 안전시설도 턱없이 부족

다. 망망바다위 감관에서 물끄러미 파도와 갈매기를 응시하며 한없는 신비함의 얼굴표정을, 쏟아져 내리치는 하얀 천치연 폭포줄기를 바라보며 얼어붙은 동굴들, 산금부리 분화구와 십자코지 계단을 탐방을 돌리며 열심히 끝까지 오르던 친구들, 저녁의 대강당 장미회에서 흥겨운 음악에 맞춰 막춤의 몸놀림은 누가 장애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제주공화국의 면세점에서 누나에게 줄려고 샀다는 영양크림을 소중히 내밀며 환하게 웃는 친구. 이 모든 친구들을 위해 하늘도 축복을 주는지 장마 중에도 우리는 비 한번 맞질 않고 무사히 훈련을 마칠 수 있었다.

휴가철, 장애인에게 바다를

하다. 게다가 장애인들이 관광지에서의 일반식당 이용은 거의 단념을 해야 하고 적당한 그늘이나 공간에서 준비한 음식물을 이용하는 정도다. 특히 단체가 움직일 때에는 더욱 그렇다.

얼마 전 큰 결심을 하고 모험(?)을 강행했다. 내가 몸담고 있는 이곳 훈련기관의 중증 장애인 학생 100여 명을 인솔하고 2박 3일 제주도로 공동체 훈련을 다녀온 것.

한 건의 안전사고나 의료사고 없이 진한 감동과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사실 적은 인원도 아니라 많은 걱정을 했지만 교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치밀한 계획 하에 철저한 사전준비로 큰 탈없이 만족스러운 일정을 마쳤다.

왕복교통편도 편도는 고속 페리호 여객선을, 편도는 비행기 편을 이용하였

아직도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바다와 섬, 유람선과 비행기 편 여행을 쉽게 응길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지금 연일 짙든더위가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몸이 불편하여 휴가를 특별히 떠나지 못한 훈련생, 주위지역 장애인들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하여 '물머리 해수욕장' 장애인과 가족들을 위한 '장애인 가족 여름캠프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교직원들이 당번으로 조를 짜서 장애인들에게 자원봉사와 주위관광투어 안내를 도와주고 있다.

집안에 갇혀 있고 마땅히 휴가 즐길 곳을 못 찾는 이동이 힘든 장애인들과 가족들에게 우리가 조금만 관심과 배려로 함께 휴가를 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여름이 되었을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전남직업능력개발센터 원장)

진단기간에 따라 다른 진단서 발급비용 문제있다

현직 경찰관으로 가장 빈번히 접하는 사건이 폭행 사건이다. 그런데 폭행 사건 처리에 있어 필수적으로 구비하는 서류 중 하나인 진단서 발급 비용이 병원마다 혹은 진단기간에 따라 달라 문제가 있다.

경찰서의 사건·사고와 관련하여 발급받는 상해 진단서의 경우 병원마다 가격차이가 거의 2배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진단 기간에 따라 발급비용이 달라

진다. 통상 3주미만은 5만원, 3주 이상은 10만원을 받는데, 진단서 발급자들 입장에서 쉽게 이해를 하지 못한다. 3주 이상의 진단서를 떼기 위해서는 비용을 더 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있다면 당사자들에게 최소한 설명이라도 해줘야 할 것 같다.

다만 진단서 발급 비용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관계당국에서는 철저한 방지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강창규·인터넷 독자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 지급합니다.

無等鼓

연일 계속되는 '살인 폭염'으로 지구 곳곳이 불살이다. 노약자가 숨지는가 하면 농수축산물 피해도 커지고 있다. 유럽의 폭염은 나라마다 '여름 기온 사(史)'를 다시 쓰고 있다. 올해 여름 기온이 네덜란드에선 300년 만에, 스위스에선 140년 만에 최고였다. 영국은 95년 만에, 프랑스와 벨기에에는 반세기 만에 '가장 더운 달' 기록을 갈아치웠다.

미국에서는 최근 보름 이상 계속된 폭염으로 서부 캘리포니아주만 160명 이상 사망하고, 동부 11개 주에서도 최소 29명이 숨지는 등 최소 190여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에서도 발일하던 80대 노인이 숨지다가 하면 농수축산물의 피해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가 2008년부터 폭염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폭염특보제'를 도입기로 한 관심이다. 특보를 발령, 폭염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국가 경제 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복안이다. 미국과 일본, 영국 등 선진국은 이미 폭염특보제를 도입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나라는 여름철 더위가 그리 심각하지 않아 운영을 미뤄왔다. 그러나 이제야 사정이 달라졌다. 지구온난화 탓에 섭씨 36도를 웃돌기 일수다. 대체에너지 개발 등 지구환경보전의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김우성 경제부장 wskim@kwangju.co.kr

폭염 특보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皓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FAX 222-4918	< F A X > 227-0118	< F A X > 222-8005	< F A X >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정치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 F A X > 227-9500	< F A X >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1부 2200-618	사건부 2200-690	시업2부 2200-552	< F A X > 02-773-9335
< F A X > 222-4267	조사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